

# Artist Statement

## Yoonjee Geem

My work explores invisible dimensions of reality—what exists beyond perception yet shapes how we experience the world. My practice began with a desire to give form to things that cannot be seen or held: time, infinity, light, and existence. Through painting, installation, and immersive environments, I translate impressions of natural phenomena into abstract visual forms, while questioning what lies beyond what we can see.

Light is central to my practice, not simply as a visual phenomenon, but as a way to reflect on existence. I am interested in both the light we encounter in nature and the light that emerges from within through contemplation and inner perception. This leads me to question how we experience existence, and whether something infinite might be contained within our brief experience of the present moment.

My thinking is informed by Asian philosophical concepts, particularly Nothingness (無),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I see natural forms not as static objects, but as accumulations of time—tree rings, flowing light, and organic patterns that embody continuous transformation. Materials such as mother-of-pearl, formed through the gradual growth of marine life, become living records of time. Their shifting surfaces reveal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light and darkness, visibility and invisibility.

Through recurring forms, material explorations, and an expanding spatial practice, I continu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ght, time, existence, and infinity. Ultimately, I am interested in what lies beyond the limits of human perception, and in how something seemingly boundless might be experienced within ourselves and the world around us.

## 작가 노트 (Artist Statement)

김윤지

나의 작업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각으로는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현실의 보이지 않는 차원을 탐구한다. 나의 작업은 시간, 무한, 빛, 존재와 같이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형태를 부여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회화, 설치, 몰입형 공간 작업을 통해 자연현상에서 받은 인상을 추상적인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질문한다.

빛은 나의 작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빛을 단순한 시각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사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나는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빛뿐 아니라, 사색과 내면의 인식을 통해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빛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가 존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찰나와도 같은 현재의 순간 안에 무언가 무한한 것이 담겨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나의 사유는 특히 무(無)를 비롯한 동양 철학의 개념과 존재와 부재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 나는 자연의 형태를 고정된 대상으로 보기보다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결과로 바라본다. 나이에, 흐르는 빛, 유기적인 패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다. 해양 생물의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자개와 같은 자연 소재는 살아 있는 시간의 기록이 된다. 빛의 각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표면은 빛과 어둠, 가시성과 비가시성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반복되는 형태와 다양한 재료에 대한 탐구, 그리고 점차 확장되는 공간 작업을 통해 나는 빛, 시간, 존재, 무한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각이 미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무한해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 내면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 안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